



## 다가오는 위기를 지혜롭게 준비하라

### ⑥ 최윤석(아시아미래연구소 소장)

#### 위험한 부모들이 하는 시범들

당신 가족은 내일 모처럼 시간을 내서 시혜인의 가까운 섬에 놀러 가기로 했다. 두 아이는 가족 나들이에 대한 부푼 기대로 벌써 흥분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일기예보가 방송에서 흘러나왔다.

“내일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상륙할 확률 80%!”

이 상황에서 과연 태풍이 비껴갈 확률 20%에 베풀어서 섬 나들이를 강행하려는 부모가 있을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부모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의 10년 미래를 놓고 많은 정치, 경제, 사회 유명 인사와 집단들이 위험한 부모놀이를 하고 있다.

“팬텀! 태풍도 우리는 비껴갈 거야. 과거에도 그랬거든.”

태풍이 상륙할 확률이 80%라면 섬 나들이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집 안팎의 위험한 것들을

살펴서 단단히 대비하는 것이 먼저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하여 14년의 미래에 대해 예보를 해 주셨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태풍이 비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민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필자와 아시아미래연구소는 2009년 초부터 앞으로 10년 이상 반복적인 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는 월드스파즘(World-spasm) 현상을 경고해왔다. 또한, 한국의 성장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면서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기관과 기업들에 역설해왔다. 또한, 2011년부터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차례로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이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아시아의 금융충격이 현실화돼야 끝나는 사건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필자는 내심 이런 예측 시나리오가 틀리기를 바랐다. 그렇게 되면 진본 미래학자로서 필자의 명성에는 흠집이 생기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기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언제나 마지막 결론에서는 필자가 제시한 위험과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미래를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강조했다. 결국, 미래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요셉처럼 위기를 미리 알고 지혜를 발휘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한 발 앞서 바꾼다면 극심한 흉년이 오더라도 망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창 41:36)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관성과 이익 때문에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필자가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외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건대, 최소 4~5년, 길게는 앞으로 2020년경까지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저성장과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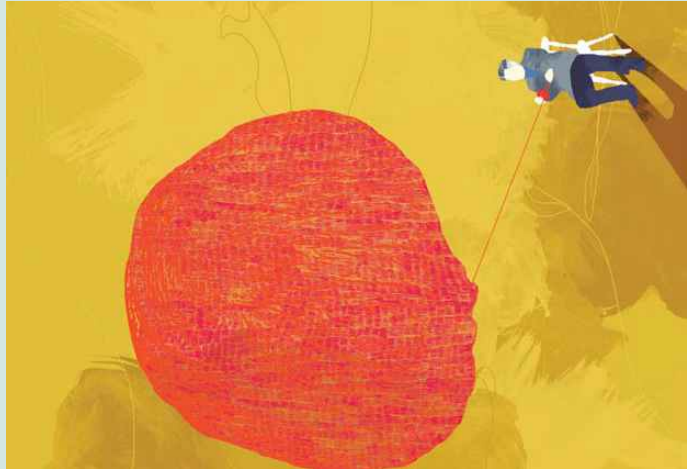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관성과 이익 때문에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필자가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외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건대, 최소 4~5년, 길게는 앞으로 2020년경까지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저성장

과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러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2016~2017년경에 첫 번째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2020년 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에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주도산업 2) 종신고용 붕괴로 말미암은 중산층의 몰락 3) 저출산과 고령화로 말미암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내수시장 침체와 경제성장을 저하 4) 부동산 기쁨 붕괴 5) 막대한 가계 부채의 위기 6) 이익집단의 극심한 저항과 포퓰리즘으로 인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7)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8) 급격한 흡수통일의 위험.

###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위기가 오고 있다

미래는 반드시 좋게도 혹은 나쁘게도 보아서는 안 되며,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현재의 지력으로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필자가 보는 객관적인 우리나라 10년의 미래는 최소한 정체가 기고 잘못된 대응을 하면 심하면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겪게 될 대상은 작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한 1,640만 명에 달하는 1,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 100세의 시대와 맞물리면서 5천 년 역사상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다. 마치 7년의 흉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의 극심한 7년의 흉년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6년 후인 2028년에 전체 인구의 반절 이상이 55세 이상 은퇴자들로 구성된다. 동시에 이들은 은퇴 후 50년은 자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들의 유일한 희망인 국민연금금은 2036년경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2047~2057년경이면 완전히 고갈상태에 빠진다. 이를 막는 유일한 길은 젊은이들의 세금을 40%까지 높이고,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연금 수령액도 대폭 삭감하는 길뿐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은퇴자들에게 주고, 하나의 일자리를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누어 일하는 것뿐이다. 결국, 세대 간의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 요셉의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라

고령화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민 전체의 평균 생활 수준의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내수시장 규모 축소, 사회 활력 저하, 저축률 하락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판타멘털의 약화, 농촌 및 중소도시의 경제 파괴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양산할 것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장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라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창 41:32-33)

필자가 지금까지 예측한 내용은 상당 부분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물론 기존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들은 기업들을 올바르게 유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나 부동산 거품 붕괴, 막대한 개인부채 등의 문제는 거의 피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명철하고 지혜 있게 대응을 하여 망하는 수준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1,640만 명에 이르는 1,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미래준비가 핵심적이다.



첫째, 다가올 극심한 장기적 흉년에 대비하도록 정신적 영적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사실 100년의 인생을 살다 보면,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앞으로 10년은 흉년의 시기일 뿐이다. 비록 7년의 흉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하면 더우더 나은 미래, 더욱더 행복한 미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미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14년의 미래를 미리 알려 주신 이유다. 잠시 급한 일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둘째, 다가오는 흉년의 시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곡식의 1/5을 모아 놓아야 한다. 소비증독에 서 벗어나 청지기적인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미래를 위해 모아 두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편, 저금, 부채, 부동산 등의 자산을 재검정하라. 빛은 될 수 있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며, 보험이나 연금 등은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조정하라. 소비의 패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라. 아끼고 잘 관리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더불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사용하라. 하나님은 세상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 제화와 서비스의 총량이 지구 위의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량이 되도록 하셨다. 단, 그것을 잘 분배하고 사용하는 책임을 천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특히, 크리스천의 사명이 되게 하셨다.

셋째, 흉년의 시대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삶의 규모의 재정비, 새로운 일자리 준비 등 새로운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100세 시대는 인생설계를 2번 하는 시대다.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새로운 50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재설계하라. 이것이야말로 은퇴 후 50년을 사는 시대의 최대 축복 가라기 아닌가! 이런 요셉의 지혜가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있기를 희망한다.



최윤식 전문 미래학자(Professional Futurist), 아시아미래전략자문자 Futures Group 회장, 아시아미래전략연구소장이다. 전경련 전략포럼 주요교수, 소망과사랑교회회 담임목사이며 저서로는 '2020년 부의 전쟁 in Asia'(시스노마드), 등 17권의 책을 저술하였다.